

# 현대 도시공간 재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살인의 추억>과 <극장전>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Modern City Space in Korean Film

- <Memories of Murder> & <Theatre> -

이승환

목원대학교 영화학부

Seung-Hwan Lee(jpk88@mokwon.ac.kr)

## 요약

한국의 도시화는 압축근대, 산업화의 신화를 바탕으로 국가주도로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간적 평창과 도시로의 유입인구 증가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 확대만의 상징만이 아니라 사회 상부구조 구축의 영역까지도 상징한다. 본고는 영화 <살인의 추억>과 <극장전>을 중심으로 1980년대 농촌과 도시 혼성 형태의 공간과 2005년 서울 도심 공간의 함의 변화를 통해 현대화 과정에서의 억압과 공포,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 도시 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확인하다.

■ 중심어 : | 도시 공간 | 현대화 | 현대적 폭력성 | 포스트모던 |

## Abstract

Urban community films have achieved the industrial modern society's idiosyncrasy. Popular films have achieved the industrial growth through city as the completion of modernization. They also have represented the social meaning of urban space, and have expanded 'their political space'. This filmic challenge showed diverse negative factors which were the poor's economical difficulties, the relative robbery of their education and job, and adhered class in city through developing the urban space with were hidden beyond modernity's splendor.

■ keyword : | City Space | Modernization | Modern Violence | Postmodern |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대중영화에 재현되는 도시공간의 모습은 단순히 영화의 배경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자체로써 영화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TV 범죄 수사 시리즈

인 <C.S.I>의 경우,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속 시리즈로 뉴욕과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시리즈가 등장, 각각의 시리즈가 각 도시 나름의 매력과 연계된 사건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일한 소재의 영상물일지라도 그 공간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적 이데올로기들을 발산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해석의 범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영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형적인 뉴요커인 우디 알렌의 뉴욕식 풍자와 유머가 가득한 그의 영화들은 뉴욕을 무대로 영화제작 당시의 뉴욕시의 정치, 문화 경제적 함의들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한국 대중영화 역시도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개인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특히 90년대 후반, 일상의 의미 재현을 시도하는 일군의 젊은 감독들의 등장은 한국 대중영화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80년대와 90년대 한국지식사회를 풍미했던 사회 구성체 논쟁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논의와 경쟁들이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과 더불어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고,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후기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즉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70, 80년대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획득했다고 믿었던 한국사회의 안정적 펌더멘탈과 중산층 사회 구성원들의 안락함이 위협당하면서 그동안의 성장제일주의의 한국사회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변화된 일상들이 등장하게 되고 대중문화 역시도 이와 연관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 변화 앞에 초라하고 무기력한 개인의 일상들은 단순히 특정 시기의 일시적 현상일 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또 다른 사회적 구성체로의 전이됨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에 한국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한국대중영화 재현의 형식적/텍스트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현대성, 현대화의 확인체로써 그 역할이 충분하다.

대중영화에서의 현대성 재현은 여러 분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국가라는 구조적 권력에 의해서 조성되는 도시공간과 그에 따른 개인의 일상적 변화를 미시적으로 재현하는 영화들을 통해 영화적 재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른바 '암축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 신화에 의한 여러 폐해들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현대적 도시공간의 형성과 도시공간들의 재현과 연관된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영화들은 크게 서울이라는 도시공간과 서울 주변의 농촌지역들이 도시, 산업적 공간으로의 재편되는 현상의 재현과 서울을 제외한 어느 특정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이러한 지역적, 공간적 영화 배경이 단순히

공간적 배경으로 활용되어지는 그 이상의 의미, 한국 현대화의 이데올로기적 내포한다. 이는 단순히 서울과 지방 학생들의 대중문화 소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문화소비주의적인 미시적 접근뿐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공간 개발에 따른 거시적 분석 역시도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한국 대중영화의 현대성 재현과 관련된 논의들은 1960년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로 치愆되는 시기의 서구화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변화들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시작된다. 60년대 한국영화에 재현되는 여성의 모습과 여성관객들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변화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에 대해 주유신, 변재란, 김소영 등의 연구가 있었다. 주로 한국사회내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영화적 재현 부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황해진은 1970년대 유신체제하 한국사회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른 영화적 재현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 체제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그에 따른 대중영화의 함의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조외숙은 학위논문을 통해 70년대 한국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여성노동계급의 재현에 대한 연구를 보여준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여성들의 이동과 이들이 도시 하위계층으로 급격하게 편입되는 모습을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로써 설명한다. 또한 최윤식은 70년대 호스티스 영화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 변화의 묘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선행 연구 대부분의 경우, 현대성과 현대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여성성과 관련된 연구이거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도시 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연관된 대중영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도시의 중심 공간인 서울의 종로와 남산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극장전>과 경기도 화성지역의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살인의 추억>을 중심으로 대중영화에 재현된 도시 중심부 공간과 지리적, 문화적 경계에 위치한 주변부 공간의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변화에 대해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극장전>의 홍상수는 데뷔작 <우물에 빠진 돼지> 이래, 사회구조에

의해 억눌린 개인주체들의 재현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인간들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힘>이나 <생활의 발견> 등을 통해서도 보여주듯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며 각각의 공간적 의미 재현을 통해 공간적 의미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에 상당한 역량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봉준호는 그의 단편 <지리멸렬>과 상업 데뷔영화 <플란더스의 개>를 통해서 이미 도시주거공간의 상징인 아파트를 활용한 공간적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살인의 추억>에서는 도시공간, 그리고 전 근대적인 도농 혼합공간과 개인일상의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최근 <괴물>을 통해서는 한강이라는 지리적 상징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현대성에 대한 영화적 재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극장전>과 <살인의 추억>은 80년대 한국 도시공간과 2000년대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한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에 관한 논의는 맑스주의와 도시주의의 경쟁적 논의를 그 출발로 한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생래(生來)적인 도시 공간의 계급적 논의들은 엥겔스의 연구 아래로 주택 문제와 농촌과 도시 노동자들의 이념적 변화와 더불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사회, 세계화 시대의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성은 단순히 생산과 연결된 사회의 하부구조만이 아니라, 문화와 같은 상부구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발현되고 있다. 2005년의 서울 그리고 1980년대 국가와 공적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와 농촌의 혼성 공간에 대한 들여다보기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 현대와 전근대 점점 공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현대적 폭력성이 야기한 시공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에 대한 관찰이다. 이는 개인이 누리고 향유하는 일상성의 영역이 사적영역만의 결과가 아니라 공적영역과의 무수한 교류의 결과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조적 억압이라는 거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주체들의 일상에 대한 미시적 연

구와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다.

## II.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 1. 영화적 재현

영화 <살인의 추억>은 1986년부터 시작된 10건의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추적을 다룬 영화이다.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여성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서울에 근무하던 서태윤 형사(김상경)는 화성으로 전근을 자청, 박두만 형사(송강호)와 범인을 쫓는다. 하지만 서류와 과학수사를 중요시하는 서 형사와 동물적 직감을 중요시하는 박 형사는 사사건건 부딪힌다. 박 형사와 조 형사(김회하)는 용의자들을 잡아와 자백을 강요하고, 서 형사는 그들과 달리 과학수사를 표방하며 범인 검거에 나선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고 부녀자 살인 사건은 계속된다. 그들은 박현규(박해일)를 진범으로 확신하지만, 미국에 의뢰했던 정액검사의 결과 박현규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세월이 흐른 뒤 경찰생활을 관둔 박두만이 처음 사건이 시작된 수로를 찾았을 때, 근처의 어린이는 어제도 평범한 인상의 아저씨가 다녀갔다고 이야기 해준다.

<극장전>은 2000대 어느 겨울 날, 종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수(김상경)와 은실(엄지원) 대한 영화이다. 영화의 전반부는 동수의 선배이자 투병중인 영수의 영화로 구성되어 있다. 종로에서의 상원과 은실의 만남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산 언저리 여관에서의 두 사람의 자살 시도로 진행된다. 영화 속 영화가 종영된 이후, 극장 앞에서 은실과 우연히 마주친 동수는 은실을 따라 종로일대를 배회하고, 그날 저녁, 영수를 위한 동문들의 모임에서 영실을 다시 만난다. 동수는 영수가 입원한 병원 앞에서 영실을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동수는 마침내 영수의 입원실을 방문한다.

두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매우 상이하다. <살인의 추억>에 등장하는 1986년의 경기도 화성은 그동안 박두만이 기억하던 공간과는 사뭇 다른 공간이다. 동네 주민들의 대부분을 기억할 만큼 농촌의 체취가 강하던 화성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고 외지인들의 전입이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산업화된 도시적 풍광과 농촌의 풍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 이후 도시화의 진행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농촌 풍경이 도시적인 풍광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를 보인다. 반면 <극장전>의 도심 공간, 좀 더 정확히 서울의 종로를 중심으로 한 2005년 서울의 공간들은 개인 일상의 배경으로 활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을 스쳐 지나지만, 은실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여학생들과 커피숍의 등수를 알아보는 동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의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동시대의 한국영화이지만 두 영화에 재현되는 공간들은 각 영화들의 시대공간의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도시공간의 의미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이른바 현대화가 진행 중인 공간과 현대화 이후 개인이 향유하는 공간의 의미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부분인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현대화, 산업화 신화가 남긴 규율과 억압의 시대는 모더니즘의 퇴조만큼이나 빠르게 또 다른 억압으로 변이되어 포스트모던의 한국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준다. 서울시청 앞의 광장은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시위공간이 아니라, 국가대표 축구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많은 이들의 축제의 공간으로 변한 것처럼 도시공간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발현체인 것이다.

## 2. 도시 공간과 주체의 경합

<살인의 추억>은 범인을 뒤쫓는 범죄 스릴러물의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 국가 권력의 만들어낸 공간들에 의해 재생산되는 공포를 재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사회의 변화 속에 그동안의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접근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포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공포의 존재가 강간과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형태로 발현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영화가 경찰과 보이지 않는 범인의 대결로 압축되는 것은 영화적 재미를 위한 설정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들에 의해 재생산된 또 다른 괴물과 공포와의 대결임을 암시

한다.

반면 <극장전>의 종로는 줄음이 밀려올 정도의 따분한 공간이자, 각 개인들은 타자에 대한 형식적인 배려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간에 대해 일상이 드러나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변화나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대 사회 아니 포스트모던 사회의 개인 주체들이 부유하는 일상의 공간이다.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가 지향하던 일본식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서구식 노동의 유연성의 도입과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무기력이 표현되는 공간들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정재은, 2001)의 혜주(이요원)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하던 주변부 인천의 모습이 산업화의 그늘로써 발생한 지역적 공간의 계급화에 대한 질문이라면 <극장전>은 그토록 많은 이들이 열망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보여주는 각 개인들의 무관심에 대한 영화이다.

영화의 도입부에 보이는 남산타워의 모습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매일 보는 상징물이지만,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건축물인 것처럼, 등장인물 대부분이 공유하는 서울 종로는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친밀함이나, 거리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르페브르는 도시의 공간들이 상업화되고 자본의 식민지화하며 권력화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현대화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던 3.1 빌딩과 남산타워는 이제 63빌딩과 무역센터에 그 상징적 자리를 내주었고, 조선시대 아래 상업과 유행의 중심이던 종로는 강남에 그 자리를 내준 다소 쇠락한 상징과 공간이다. 이제는 오히려 현대화의 급박한 물결 이후 진행되는 포스트모던 세계의 새로운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도시공간의 의미가 다분히 정치경제적 분석을 필요로 함을 설명하는 이론들이고, 특히 현대社会의 시각적 풍요로움의 재창조는 개인의 희생뿐 아니라 황폐화된 개인 주체를 넘겨놓게 됨을 지적한다. 하비는 도시화에 관한 연구를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경관의 생산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생산이 전개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로 규정하고[1], 프랑스 제 2제정 당시 파리를 재건한 오쓰망 Haussman과 2차 대전 후 뉴욕에서 활동한 모세

스 Mose, R를 예로 들며 이를바 ‘창조적 파괴’의 양상을 현대화 과정의 하나로 지적한다[2]. 특히 베만은 도시를 현대화의 원초적 장면으로 본다. 베만은 모세스의 뉴욕 고속도로 F.D.R 건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개발과 새로운 건축 구조물을 통한 현대적 도시 공간 창조가 쓰레기장을 호화로운 물리적, 사회적 공간으로 바꾸어내지만 발전 주체의 마음속에 또 다른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지적한다[3]. 황종연은 베만이 지적하는 현대화란 과학적 발견, 생산의 산업화, 인구변동, 도시팽창, 대중매체의 성장, 민족국가의 탄생, 대중운동의 확산,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의 성립과 같은 일군의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이다[4]. 도시공간이란 공간의 자연적 성격인 물리적 속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의 공간들로 변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도움 없이 진행될 수 없으며 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조직화하고 전제사회를 웅집시키는 역할을하게 된다. 국가가 일상생활의 공간에 직접 개입하는 활동부분은 ‘노동력 재생산’으로, 주택이나 의료, 공공시설 등과 같이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집합적 소비’의 제공이나 정책을 통해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국민들 일상생활에의 개입은 여전히 계급성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계급을 위한 노골적인 정책이 아니더라도 주택 환경 교통 공공설비 등 의 정책적 결과는 계급에 따라 득과 실이 분배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5]. 도시화는 현대화의 결과로 진행되고, 이는 결국 현대화와 산업화의 주체인 국가의 권력과 의지가 발현되는 지점이다. 이는 단순히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상부구조인 경제, 정치, 문화의 복합적 발현체인 것이다.

### 3. 도시공간의 이데올로기

소자 Soja, E.는 ‘공간은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범주로 간주되는 것으로, 공간은 부여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매시 Massey, D.는 모든 ‘공간적 관계와 공간적 진행이라 불리는 것들은 특정한 지리적 형식을 취하는 현실적인 사회적 관계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도시공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관한 논의들로, 공간에 사회의 핵의적 관계들이 반영된다는 이런 주장은 건축과 같은 예술로부터 시작되어 보드리야르 Baudrillard, J의 기호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도시공간의 담론으로 확대된다[6]. 현대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재현방식을 통해 한 국가의 현대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도시공간과 그곳에서의 일상성과 국가 모두 현대성의 논의, 현대적 문화와의 합일점을 통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논의이다.

결국 도시화 현상은 ‘구체적 생활세계의 단면이며, 사회이론으로서의 도시이론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또한 도시는 세계체제, 국가, 계급, 인종 등 이른바 거시적 힘들이 미시적 생활의 장소에 중층적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공간이다[7]. 도시 공간의 의미는 자본과 공간, 그리고 국가와 공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화를 통한 사회의 변화는 각 국가와 도시들의 서로 다른 모습이 내포하는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간은 교환가치로써 추상화되고 있는 반면, 끊임없이 다양한 기능을 위해 즉 사용가치를 위해 과편화되고 있어 모순(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고, 권력과 부, 정보 등의 역량에 따라 공간이 위계화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등을 통해 국가가 공간에 개입함으로서 공간은 더욱 정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8].

현대성, 현대화, 도시화는 현대인들에게는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괴물 스팽크스나 켄타로스와 같은 기묘한 존재이다. 신화의 반인반수 괴물들은 고대 사람들이 꿈꾸던 신체적 능력과 함께 인간 이상의 지적능력을 지닌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현대화의 길목에서 마주치게 되는 도시화의 문제들은 스팽크스가 던지는 수수께끼만큼이나 우리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대도시가 아닌 농촌과 도시라는 혼합형태의 경기도 화성은 정확하지 않은 타자의 위협에 놓여있다. 엥겔스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맨체스터 노동자들의 주거지를 조사하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하고 피폐한 것인지를 말했지만, 산업화 공간의 도시 노동자로 편입되는 한국의 농촌과 도시의 혼합형태의 공간은 초기 산업화의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용의자를 쫓아 공장으로 뛰어 들어간 장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노동자들은 모두 동일한 마스크

와 작업복 차림이다. 탈개성화된 현대사회의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타자화되고 폭력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 동네 사람들의 '우리'라는 공동체적 자아는 그 내부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좀 더 작아진 범위의 개인적 주체만이 남아 서로를 타자화 시키며 현대성이란 신의 노여움에 떨게 된다. 강간과 살인이라는 범죄는 개인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일뿐 아니라 현대성의 폭력성에 의해 방치된 곳으로 그 가운데는 불특정의 마을 부녀자들이 놓여있다.

#### 4. 주체 영역의 변화

<살인의 추억>에서 경찰서 지하실은 전능한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간적 구속으로, 조형사의 발길질 보다 더욱 두렵고 은밀한 억압이다. 조형사의 발길질 역시도 국가의 보호막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지하실에서만 사용된다. 그곳에서 백광호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국가의 의지를 받아들인다. 범죄현장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지원도 불가능해서 유일한 증거인 발자국이 어이없이 사라지고, 형사는 새로운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해결하려 시도한다. TV 드라마 수사반장의 경쾌한 시그널 음악에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된 인물로 재탄생되어 지하실과 현장 검증 장소에서 그야말로 난리를 치르게 된다. 어둡고 음습한 지하 공간에서 관철된 국가의 왜곡된 의지는 환한 태양아래에서 광호 아버지의 외침 한마디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진다.

산업화의 모습으로 형성된 공장과 전통적 농경사회의 모습이 혼재된 화성은 현재적 규율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압과 공포가 발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전투경찰들은 학생들의 시위진압에 동원되어 그들이 보호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안녕을 돌볼 겨를이 없고,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등화관제 훈련은 칠흙같은 어둠속에 어린 여중생과 남편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기위해 공장으로 향하던 새댁, 그리고 늦은 밤 귀가를 서두르던 젊은 여성들은 무참히 강간 살해되고 논과 야산 그리고 농수로에 버려진다. 전형적인 농가와 다소의 거리를 두고 들어선 공장의

웅장한 굴뚝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보상의 상징물이었지만, 벼먼의 지적처럼 마음 한 구석에 쓰레기장을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은밀하게 내재되어있던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에 의한 공포에 더하여 새로운 이웃 남성에 의한 공포까지 염려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심한 화상의 상처와 정신장애를 보이는 광호는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답변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공포를 보인다.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진 이유가 사실은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행해진 폭력의 결과는 공적 영역의 열등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용의자로 지목 받은 용규의 방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의 혼적인 가족들의 사진이 보여진다. 홀로 화성에 내려와 자취생활을 하는 그에게 이곳은 억지 텃세를 부리는 경찰들에게 시달리는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다.

현대화의 풍요로움으로 향하는 도시화의 길목에 베타고 선 스피크스는 화성주민들에게 두려운 질문을 해대고 있다. 정말 잘 살게 된 건가? 당신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이 이것이었는가? 범인의 개인적 충동만이 연쇄살인 사건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 도시공간의 의미는 단순히 인구의 증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행정구역의 의미를 넘어선 현대화의 의미를 함께 한다.

#### 5. 도시공간의 포스트모던적 변화

도시공간의 논의들의 대부분은 현대화 과정의 변화와 현대성 변화의 모습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한국 도시공간의 재현은 현대로의 이행을 넘어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재현이기도 하다. <극장전>에서 영수의 영화에 등장하는 종로와 남산주변은 상원과 은실이 만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개인의 사적영역일 뿐이다. <살인의 추억>에서 '타자'에 대한 공포가 존재했다면 이 영화에서의 '타자'는 '존재감' 조차도 없다. 영수가 은실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사랑한다는 고백은 영화의 말미에 은실의 대사에서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오늘 재미 많이 봤잖아요, 뚝" 그들의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 하룻밤의 불장난임을 서로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처음 만나 은실과의 섹스만이 그의 관심의 전부이기에, 그녀와의 술자리, 개인적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대화는 산업화 이후 사회에서의 변화들 모두를 포괄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변화라는 것이다. 베만은 보들레르 Baudelelaire의 독가적인 현대적 양식을 분명하게 창조한 현대생활에 대한 서정적 찬양 및 현대성에 대한 열정적인 체념, 즉 거리의 모더니즘과 고골리, 도스토예프스키 그리고 체르니솁스키가 묘사하는 러시아의 외래적이고 세계주의적 세력을 대표하는 성 페테스부르그의 비현실적 묘사를 통해 근대 도시생활과 모더니즘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도시화와 도시생활의 모습이 현대화, 모더니즘이나 관련 있음을 분명한 것이고 모더니즘 예술들은 현대화의 과정에 등장하는 주체의 혼돈에 대한 성찰의 모습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도시가 공간의 빌딩과 건축 구조물 등을 통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화적 재현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문화와 도시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듯, 문화의 재현과 국가의 연관성에 대해 바비는 국가에 대한 여러 표현들의 전치와 반복은 국가를 문화적 현대성을 가늠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9]. 80년대 후반의 종로는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공적의견의 대립과 분출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날씨의 2005년 종로는 개인들의 부유 공간이다. 이른바 주체의 해체에 대한 논의가 다각화되는 포스트모던적 주체들의 공간인 것이다. 이른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주체의 분열과 결여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영화 공간들은 영화의 주인공들만이 존재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는 공간들이다.

#### IV. 맷을말

도시는 현대화의 진행에 따라 농촌을 떠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며 형성된 공간으로, 도시의

생성은 이미 현대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화는 1960년대와 비교해보면 느린 속도이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화율은 89%에 이르는데 전국 인구의 약 90%가 육 이상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이후, 도시화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한국 대중영화에는 1960, 1970년대처럼 급속히 진행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진행되는 도시화의 의미에 대한 재현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의 영화들에는 도시화 재개발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점차 고착화되는 한국 사회구조의 반영으로서 재현되고 있다. 황종연은 베만이 주장하는 문제들의 핵심은 20세기의 양극화된 이론들 - 베버에 의해 예시되어 오르테가, 슈펭글러, 엘리엇과 같은 우파 성향의 지식인들과 「일차원적 인간」의 마르쿠제를 위시한 맑스주의자들, 「감시와 처벌」의 푸코 - 이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자아의 내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결국 현대성이 야기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예술, 즉 모더니즘 예술은 구조와 주체의 합의에 의한 선택의 연장선상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대중영화에서의 공간적 합의에 대한 고민들은 <우뚝 배미의 사랑>(장선우, 1990)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도심 주변부의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 <고양이를 부탁해>(정재은, 2001)에서의 쇠락한 인천의 도심, <세 친구>(임순례, 1996)에서의 달동네 청년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통해서도 주변부 도심의 공간적 의미가 계급적 합의와 연결됨을 보여준다. 두 영화의 도시공간들은 한국 현대화 과정의 상징적 공간들을 재현해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화, 산업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도시들은 지리적 문화적 팽창을 계속해 오고 있다. <살인의 추억>에는 80년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국가 폭력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극장전>에는 2005년 한국 사회의 포스트모던적 주체상실의 내용들이 담겨져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재 한국社会의 공간적 이데올로기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데올

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데이비드 하비, 구동희, 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 [2] 데이비드 하비, 초의수 역, *도시의 정치 경제학*, 한울, 1996.
- [3] 마샬 버먼, 윤호병, 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 미학사*, p.370, 1994.
- [4] 황종연, *모더니즘의 망령을 찾아서*, 문학동네, p.360, 2001.
- [5]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 2001.
- [6] 손 호머, 이택광 역, *프레드릭 제임슨*, 문화과학사, p.10, 2002.
- [7]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00.
- [8]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 [9] H. Bhabha, *Dissemination*, Routledge, p.292, 1992.

#### 저 자 소 개

이승환(Seung-Hwan Lee)

종신회원



- 1991년 2월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사)
- 1996년 1월 : 美 N Y U , Media Ecology(M. A)
- 2002년 2월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Ph.D)
- 2004년 3월~현재 : 목원대학교 영화학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 문화연구, Digital Intermediate